

2009년 3/4분기 축산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09년 3/4분기 축산관측에 따르면 한육우는 쇠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로 한우암소 산지가격은 495~505만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돼지의 경우 돼지고기 소비의향 회복세로 평균 자육가격은 전년동기보다 3%정도 높은 4,800~4,900원으로 전망했다. 육계의 경우 닭고기 총 공급 감소로 전국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2,100~2,300원으로, 산란계의 경우 산란용 마리수 증가로 계란생산량은 전년동기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육우

한육우 2009년 6월 사육두수 258만 5천두 전망

2009년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48만 1천두로 전년 동월대비 10.7% 증가했다. 송아지 입식의향 조사결과, 송아지 입식을 당초보다 증가시키겠다는 농가의 비율이 전년보다 0.6%p 증가한 5.5%로 조사되어 농가의 송아지 입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아지 입식 수요 증가 및 사료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로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육우 사육두수는 6월 258만 5천두, 9월 261만 2천두로 전망된다.

6~8월 공급물량 전분기 대비 6.0% 감소전망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3월까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2009년 1~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6만 6천톤이었다. 이에 2009년 6~8월 쇠고기 수입물량과 국내 도축 물량을 포함한 총급량은 전분기보다 6.0% 감소할 전망이다. 1~3월 소비자 1가구당 매월 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전년동기 1.4kg보다 16.2% 증가한 1.63kg이었다. 6~8월 쇠고기 소비지수는 전분기 대비 0.8% 하락에 그쳐 공급지수 하락폭인 6.0%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6~8월 한우 수소가격 410~420만원 전망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산 쇠고기 단가 상승과 사료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로 한우농가의 사육의향이 고무되고 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과 최근 저가형 정육점 식당이 증가하고 있어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8월 한우 600kg 기준 전국 평균 산지가격은 암소 495~505만원(전년동기 대비 6.6% 상승), 수소 410~420만원(3.9% 상승), 수송아지 195~205만원(5.1% 상승)으로 산지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로 전망된다.

■ 돼지

폐사두수 줄어 사육두수 1.7% 증가 전망

돼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료비 부담은 여전히 모든 수는 전년보다 감소해 2009년 3월 모돈수는 92만 7천두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이렇게 모돈 수는 감소했지만 자가조직백신의 보급으로 폐사두수도 함께 감소하여 전체 사육두수는 917만 7천두로 2008년 3월보다 오히려 2.2% 증가했다. 소규모 농가위주로 진행될 폐업으로 2009년 3월 사육농가수는 전년 동월보다 3.8% 100호 감소한 7천 6백호였으나 1천두 미만 농가 수는 4천6백

호로 전년보다 8.0% 감소, 1천두 이상 농가 수는 3천1백호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사육농가의 규모화 진전으로 2009년 3월 가구당 사육두수는 1천201두로 전년 동월보다 6.0% 증가했다.

6~8월 지육가격 4,800~4,900원 전망

두 차례에 걸친 사료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료비 부담이 여전하여 모돈수가 감소했지만 2009년 6월 돼지 사육두수는 925만두, 9월에는 1.7% 증가한 945만두로 전망된다.

금년 5~6월에 출하예정인 2~4개월령 두수는 2008년 3월보다 1.3% 증가했고 7~8월에 출하되는 2개월령 미만 두수도 0.3% 증가했다. 6~8월 출하에 영향을 미치는 1~4월 육성돈 배합사료 생산량은 1.3% 감소했으나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6~8월까지 출하두수는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가격이 높게 유지되었음에도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009년 4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동월보다 15.3%가 증가한 2만 4천톤이다. 환율이 안정되고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6~8월에도 돼지고기 수입량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6~8월 사이에는 돼지 출하두수가 늘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와 원산지 표시제에 의한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같은 기간 돼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소폭 상승한 4,800~4,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닭고기

닭고기 총 공급감소로 6월 육계가격 강세 전망

사육수수의 증가로 6월 도계수수도 전년 동월보다 2.2% 증가, 전월보다 4.7% 증가한 5,853만 수로 전망된다. 육계 가격 강세로 5월 10일 현재 계열업체 비축량은 139만 수로 전년 동기보다 84.3% 감소했으며 국제 닭고기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발주량이 감소하여 2009년 6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40.8% 감소한 4천 5백톤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5월 육계 생체 kg당 가격은 2,1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비축 및 수입량 감소로 닭고기 총공급이 감소하여 2009년 6월 전국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1,408원에 비해 크게 상승한 2,100~2,300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종계 도태 지연으로 사육수수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수기에 접어드는 8월 중순 이후 육계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은 급락할 수도 있다.

■ 산란계

비육 수요가 커 6~8월 계란가격은 1,000~1,200원 전망

6~8월 계란 생산에 신규 진입하는 계군은 713만 수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농가 조사결과 계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3~5월 농가 도태의향은 낮았으나 비수기에 접어드는 6~8월에는 도태 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산란종계 입식수수가 증가하여 2009년 6월과 9월 사육수수 잔재력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7.1%, 4.6%이다. 또 산용계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6월과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동월보다 각각 4.3%, 5.3% 증가함에 따라 산란 실용계 입식수수 증가로 6~8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동기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요인이 있지만 사료가격 상승분이 계란가격에 반영되고 유통단계의 비축 수요가 충분하여 6~8월 전국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높은 1,000~1,200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산란 실용계 입식수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노계 도태가 지연될 경우 2009년 4분기 이후 계란가격은 약세로 돌아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